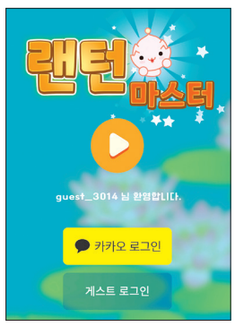
온라인 연등회, 'UPGRADE'돼 돌아왔다

연등회보존위 모바일 게임
'연등회 랜턴마스터' 출시
쉬운 퍼즐아케이드 장르로
연등회 燈만들기 흥미 유발
온라인 연등행렬도 '버전업'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연등회가 처음 선보인 모바일 게임 '연등회 랜턴마스터' (사진 왼쪽)와 지난해 많은 호응을 얻어 올해에도 진행되는 '온라인 연등행렬' (사진 오른쪽)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뤄지면서 3년 만의 '오프라인 연등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즐기는 연등회도 빼놓을 수 없다. 더욱 업그레이드돼 돌아왔기 때문이다.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원행)는 최근 연등회 등(燈)만들기 모바일 게임인 '연등회 랜턴마스터'를 출시했다. 안드로이드, ios를 모두 지원하며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연등회 랜턴마스터'는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등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퍼즐 아케이드 형식의 3매치 게임이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연등 재료가 제공되고 이를 모아서 자신이 필요한 연등을 제작하면 된다. 만든 연등에는 소원을 작성할 수 있으며, 소원나무에 걸 수 있다.

지난해 처음 공개돼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던 '온라인 연등행렬'도 올해 다시 진행된다. '온라인 연등행렬'은 도심을 오색 연등으로 수놓는 대규모 연등행렬을 연등회 홈페이지(www.llf.or.kr/2022lanternparade)를 통해 구현했다. 장엄등과 연등행렬은 2D 일러스트로 재현됐으며, 행렬에 참여하며 들었던 흥겨운 연등행렬곡도 함께 들을 수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버전업'됐다. 캐릭터 생성 툴(tool)과 모션이 추가됐으며 자신의 연등행렬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됐다. 내 캐릭터의 이미지를 저장하고 SNS에 공유하는 기능도 새롭게 탑재됐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보존위원회가 처음 선보인 '연등회 랜턴마스터'는 다양한 연령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단순하고 재미있는 모바일 게임"이라며 "일반인에게 연등회와 등 만들기를 알리고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시작된 '온라인 연등행렬'은 1만 2000명이 참여하며 많은 호응을 보였다. 향후에도 지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 탄압 원인 냉철한 분석·성찰 절실"

4월 7일, 조계종 종회의원 연수서
이병두 원장 '불교차별 역사' 발제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과 종교는 위정자와 자치단체장의 종교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영역에서 자행되는 종교차별과 왜곡, 종교편향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희일비 즉각적이고 물리적 대응이 아닌 성찰과 자성을 통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4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22년 중앙종회의원 연수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사진〉은 "대통령이나 정권, 권력의 속성은 언제나 종교계를 장악하기 위해 겉으로는 화합을 말하면서도 종교계, 좁게는 불교계의 분열과 갈등이 지속되길 바라게 돼 있다"면서 "권력이 늘 쓰는 분할통치술에 이용, 악용당하지 않는 길은 우리 스스로를 찾아서 지켜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종교편향 사례 및 불교규제 국가법령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자성의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두 원장은 이날 '현대 한국불교 탄압과 차별의 역사'에서 차별과 탄압의 역사를 왜 돌아봐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원장은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며 "탄압 역사를 통해 자기 콤플렉스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성찰의 바탕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더 이상 차별과 탄압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이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다지려면 과거의 탄압과 차별이 벌어진 원인의 냉철한 분석과 스스로의 성찰이 절실하고 그 바탕 위에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수립해야 한다"며 "종단의 불교사회연구소 등에서 해방 이후 8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차별과 탄압을 받았는지 정리해 백서를 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하는 중기와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중앙종회의원 지우 스님은 '정부 및 지자체의 종교편향 사례와 대응전략'에서 시립합창단 종교편행 공연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으며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세미나는 마무리됐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은 "종교편향 문제는 해방 이후 우리 사회와 불교계를 계속해서 괴롭혀온 해묵은 문제"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계, 우크라이나 구호 박차

지구촌공생회, 3천만 원 전달
화계사에선 스님들 현지 파견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성우 스님(왼쪽 두번째)이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러시아 침공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불자들의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성우)는 4월 6일 서울 용산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주지 혜솔 스님이 기탁한 3000만 원을 전달했다.

혜수 스님과 혜솔 스님은 지구촌공생회 회원으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소식을 듣고 지구촌공생회 측에 성금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성우 스님과 사무총장 덕림 스님, 이재호 후원팀장이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대사관에서는 루슬란 뎀차크 경제참사가 나와 성금을 전달받았다.

성우 스님은 "매일 러시아 공습으로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민간인이 희생되는 등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며 안타까웠다"며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데 금액이 적어 죄송한 마음이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해 평화와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오늘 적은 성금이나마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공생회 회원인 한마음선원 이사장 스님과 주지 스님께도 감사하다"며 "불자들이 우크라이나에 성금을 모아 전달해 평화 정착과 전후 복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루슬란 뎀차크 경제참사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함께 나선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과도 같다"며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국민들이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교계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와 함께 불교NGO들의 우크라이나 구호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 우크라이나 출신 원학 스님은 전쟁이 발발하고 인접국인 폴란드로 출국해 국경지역 난민촌에서 구호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화계사는 최근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보시금을 마련해 곧이어 출국한 폴란드 국적의 관미 스님 편으로 전달했다. 4월 1일까지 폴란드인 조불 스님도 합류, 구호활동에 뛰어든 화계사 스님들은 총 세 명이다.

더프라미스는 독일 유학생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현지 지원에 나섰다. 3월 8일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베를린에 도착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담요, 매트리스,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계사 온라인 등달며 통일 염원"

민추본, 4월 5일 올해 일정 발표
4월 초 신계사 온라인 법당 개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가 남북불교 교류의 성과물 금강산 신계사 복원 15주년을 기념해 온라인 법당을 개원한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개원하는 온라인 법당에서는 등달기를 비롯해 다양한 메뉴들로 신계사를 체험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민추본은 4월 5일 서울 전법회관 7층 사무국에서 2022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민추본은 4월 초 금강산 신계사 온라인 법당 홈페이지(singyesa.org / singyesa.kr)를 개설하고 온라인 등달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온라인 등달기 캠페인은 남북 평화를 부처님께 서원하는 사업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는 등달기 뿐 아니라 신계사 대웅보전, 극락전 등 6개 전각을 온라인으로 참배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신계사 역사 및 소개, 복원불사 과정 연도별 안내, 행사사진 등이 실린다. 민추본은 향후 홈페이지 제작을 여러 지역 북한 사찰로 확대, 불자 실향민이나 이산가족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북한 사찰 3D촬영 및 VR제작사업과 연계, 온라인 참배 및 연등달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계사 낙성15주년을 맞아 남북합동법회도 추진한다. 민추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찰을 중심으로 성지순례단을 구성해 10월 13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봉행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추본 추진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고 템플스테이와 금강산 내 불교문화재 복원사업에 대한 종단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108 평화통일 도량 사업은 올해 상반기 목표했던 108개 도량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1년 3월 인천 능인사에서 제1호 도량 협약식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현재 101개 도량과 협약을 맺은 상태며 4월 말까지 108개 도량 협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민추본은 6월 중 108 평화통일 도량에 동참한 사찰에 감사를 표하며 선포식을 거행하고 하반기부터는 점차 희미해져 가는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불교계에 확산시켜 남북불교교류 및 통일사업의 원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남북불교교류기금 조성사업(가칭)을 통해 기금 형태의 재원도 마련한다. 기금 조성사업은 예측 불가한 남북관계 속에서 변화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획됐다. 민추본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이웃종교 남북기금 운영 사례를 먼저 파악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올해 연등회, 외국인들도 함께 즐겨요!

국제포교사회(회장 이재홍)는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 공연장에서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의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은 예경 의식에 이어 연등회 사무국장 선효 스님의 환영사와 국제포교사회 이재홍 회장의 축사, 기념촬영, 오리엔테이션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포터즈들은 발대식에 이어 시청 앞에서의 점등식에 연등을 들고 참가했다.

이번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는 전 세계 24개국에서 온 외국인 25명, 내국인 5명의 청년들로 구성됐다. 발대식과 점등식 참가에 이어 템플라이프 체험, 연등 만들기 체험, 율동 익히기, 프래시몹 등 4주간에 걸쳐 사찰문화와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연습한 후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 축제에 참가한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사노위, 4·3 진상규명 염원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스님을 비롯한 3만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4월 3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어울쉼터 추모공간에서 '제주 4·3 74주년 희생자 추모재'를 봉행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 관계자 및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추모재 행사장에는 희생자들의 명단과 함께 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꽃으로 곳곳을 장식해 눈길을 끌었다.

추모재는 추모사를 시작으로 명상음악밴드의 추모공연, 법고, 추모염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회노동위 부위원장 혜문, 위원 고금·동신·현성·여등·주연·대각·서원 스님과 백경진 제주4·3범국민위원회 상임이사, 희생자 유가족 등이 참석해 4·3사건으로 희생당한 이들의 넋을 위로했다.

제주 불교계는 4·3 당시 주민들이 사찰로 피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환경 속에서 제주지역사회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찰로 대피해 온 주민들을 지키다 35개의 사찰이 전소, 폐허 등의 피해를 입었고 스님들 15명이 총살, 수장, 고문후유증 등으로 희생되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근대 제주불교의 부흥을 위해 활동하던 스님들이 대거 희생되면서 제주불교 활동 전반에 큰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추모재에서 사노위는 제주 4·3 특별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하루빨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염원했다.

임은호 기자

불교계, 산불 피해 이재민에 생필품 지원

조계종복지재단, 100여 가구에 전기밥솥 등 전달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4월 1일, 동해시(시장 심규언)에 동해안 일대 산불피해 전소가정 100여 가구를 위한 250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00개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3월 18일 울진구청에 전달한 전기밥솥 지원에 이어 두 번째 전달이다. 산불 피해 긴급 모금액과 함께 평택 용성조사대원 명법사실천회(총재 화정)가 1000만 원을 동참한 것으로 마련됐다.

나누며하나되기(총재 무원)는 울진지역 이재민들 돕기에 나섰다. 3월 31일 천태종 울진 봉화사를 방문,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500만 원 상당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어 울진군청을 방문해 전찬걸 군수를 면담하고 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동해시에 전기밥솥 100개를 전달했다.

한편 사찰들은 기금은 물론 공양미를 전달하며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는 공양미 1000kg을 기탁했으며 도선사도 3000만 원 상당의 공양미 5000kg을 쾌척했다.

임은호 기자

삼국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세계기록유산 한국위, 6월 삼국유사 등 신청 예정

고려시대 일연 스님이 편찬한 역사서인 〈삼국유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 지역목록 등재 절차에 들어간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가 오는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를 신청할 기록물로 〈삼국유사〉와 〈내방가사〉,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3건을 선정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목록이다. 현재 한국의 편액, 만인소, 조선왕조 궁중 현판이 등재됐다.

이번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 신청 목록은 문화재청이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40일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5건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가 심의해 선정했다.

〈삼국유사〉는 고려 일연 스님이 1281년(고려 충렬왕 7년) 편찬한 역사서로 한반도의 고대 신화와 역사, 종교, 생활, 문학 등이 담겼다.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 신청 기록물은 오는 6월 15일까지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올해 말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